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과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 및 학교생활적응 관계

이혜순¹⁾

서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사회적 관계 확대로 친구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친구관계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술과 가치관을 습득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Kwon & Kim, 2007), 특정 학생을 따돌리고 괴롭히며 폭행까지 가하는 공격적인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의 친구관계 문제인 집단 따돌림(Olweus, 1993)은 소속 집단의 친구로부터 소외되어 소속감의 박탈을 초래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인간은 가족, 친구와 관계를 맺고 타인으로부터 수용되어 원하는 집단에 소속되어 귀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사랑과 소속의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신체적·정서적 문제 및 사회적응의 문제를 초래한다(Yang et al., 2007). 그러나 소속 집단의 친구로부터 소외당하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현상은 증가하고 있으며(Kim, Koh, & Leventhal, 2004),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 따돌림관련 조사에서 21.5% 즉 5명 중 1명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따돌림 현상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2008). 또한 집단 따돌림은 직접 경험한 청소년 뿐 아니라 가족의 정신적 문제로 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Kim & Lee, 2008).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발달과 적응 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Chung & Yuh, 2009), 높은 자아존중감은 건강한 행동 및 적응과 관련이 있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확신이 부족하고 의존적이며 불안, 우울들과 같은 신경증적인 행동을 나타낸다(Hwang & Yeo, 2006).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성인기의 주요과업과 행동을 예측한다는 점(Chung & Yuh, 2009)에서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 형성은 중요하며, 소속감에 대한 요구가 만족되면 본인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 성취감, 자긍심을 느끼는 자아존중의 요구단계로 발전한다(Yang et al., 2007). 그러나 친구나 소속집단으로 부터 소외되어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경우에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청소년기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Ko, 2002).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해 친구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경우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고 반면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경우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낮아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Rigby, 2000). 또한 청소년기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자아기능의 발달이 취약하여 우울증이 호발하는 시기이며 대부분의 청소년이 경한 우울 수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Ranta, Kaltiala-Heino, Pelkonen, & Marttunen, 2009) 청소년 우울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친구관계를 통해 의사소통기술과 갈등해결기술을 배우며 적응해 나가지만(Helsen, Vollebergh, & Meeus, 2000), 친구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우울 수준이 증가하고, 부적절한 대인행동, 등교거부와 같은 학교생활 적응

주요어 : 집단 따돌림,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 학교생활적응

1) 동서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교신저자 E-mail: lhs7878@hanmail.net)

접수일: 2010년 10월 4일 1차 수정일: 2010년 10월 28일 2차 수정일: 2010년 11월 9일 게재확정일: 2010년 11월 15일

문제도 유발하며(Kim & Lee, 2008), 집단 따돌림과 같은 친구로부터의 소외는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자살로 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Fitzpatrick, 2005), 청소년기의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집단따돌림의 경험은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사회적 영역인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과 사회적 요인인 학교생활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친구관계 속에서 연구되어야 하지만, 선행연구는 개인의 인성, 정서 및 행동 특성 등에 관심을 갖고 주로 개인적 특성과 관련지어 연구하였으며(Chang, 2003), 부모의 양육태도(Yang & Lee, 2005), 의사소통방식(Rueter & Koerner, 2008) 및 정서적 유대감(Lee & Kwak, 2000)과 같은 가정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친구관계를 고려하여 청소년의 부적응 관련 연구에서도 주로 친구집단의 문제행동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친구관계 중 집단따돌림의 경험유무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경험군과 비경험군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 학교생활적응을 파악하고,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 특히 스트레스의 어떤 하부요인이 집단따돌림에 더 중요한 요인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신체관련, 친구관련, 학업관련, 교사관련, 가족관련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집단 따돌림 경험군과 비경험군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둘째, 집단 따돌림 경험군과 비경험군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 및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집단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경험군과 비경험군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 및 학교생활적응을 파악하고,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 대상은 중학생으로 D시에 소재한 2개 중학교(G중학교, H중학교)에서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Cohen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하여 유의수준(α)=.05, 비교집단 수 2, 중간효과 크기인 .15, 검정력(1- β)은 .80으로 선정하였을 때, 한 집단 간 필요한 표본수가 312명으로 총 624명의 대상자가 요구되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수는 738명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9년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D시에 소재한 중학교의 교장선생님에게 사전에 전화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연구 참여를 허락한 2개 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였다.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기재요령을 설명한 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였고, 익명성을 유지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 참여를 언제라도 중단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구두동의를 받았다. 배부한 800부 중 765부(95.6%) 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38부(92.3%)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연구 도구

● 집단 따돌림

집단따돌림 피해 측정도구는 Callaghan과 Joseph (1995)이 개발한 따돌림 피해 척도(Peer-Victimization Scale)를 Lee와 Kwak (2000)이 번안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구성 내용은 지난 학기동안 다른 학생으로부터 놀림, 따돌림, 욕설, 괴롭힘, 떠밀거나 혹은 때림, 비웃음을 당한경험 총 6개 문항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약간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 따돌림 피해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Austin과 Joseph (1996)의 따돌림 피해 기준에 따라 집단 따돌림 경험군(평균 2.50점 이상)과 집단 따돌림 비경험군(평균 2.50점 미만)으로 분류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Austin과 Joseph (1996)의 연구에서 Cronbach' α = .83이었고, Lee와 Kwak (2000)의 연구에서 Cronbach' α = .77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 .8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따돌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Olweus, 1993)을 위해 집단 따돌림의 정의를 문항제시 전에 대상자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집단따돌림에 대해 각자의 생각이 다를 것이며, 그 정도에 있어서도 서로 달리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 집단 따돌림 경험군은 146명(19.8%), 집단 따돌림 비경험군은 592명(80.2%)로 나타났다.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 (1965)가 개발하고 Jon (1974)이 번안하고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교수 2인, 중학교 교사 1인, 교육학 전공자 1인에 의해 청소년에게 적합한지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총 10개 문항, 4점 척도로 5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5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형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본 도구는 최하 10점에서 최고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Jon (1974)의 연구에서 Cronbach' α =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 α = .88이었다.

● 스트레스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Felner, Ginter와 Primavera (1982)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스트레스 자기보고식 질문지 DHQ (Daily Hassles Questionnaire)를 기초로, Chang (2003)이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구성 내용은 신체관련, 친구관련, 가족관련, 교사관련, 학업관련 영역으로 총 27개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최하 27점에서 최고 1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hang (2003)의 연구에서 Cronbach' α =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 α = .92였다.

● 우울 측정

우울 측정도구는 Radloff (1977)가 개발한 우울도구(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CES-D)를 Chon과 Rhee (1992)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정한 자가 보고형 우울도구(CES-D)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최하 0점에서 최고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oyd, Weissman, Thompson과 Myers (1982)의 우울 기준에 따라 우울군(16점 이상)과 정상군(16점미만)으로 분류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hon과 Lee (199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5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89이었다.

● 학교생활 적응

Park (1998)이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학교생활 적응 도구로 구성 내용은 학교흥미, 학업성취, 규범준수 영역 총 22개 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최하 22점에서 최고

8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 .8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 α = .80이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집단 따돌림 경험군과 비경험군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χ^2 -test로 분석하였다. 둘째, 집단 따돌림 경험군과 비경험군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 및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는 t-test와 χ^2 -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집단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집단 따돌림 경험군과 비경험군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3.92세이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따돌림 경험 유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차이를 보인 변수는 학년($\chi^2=9.467$, $p=.009$), 성적($\chi^2=17.902$, $p<.001$), 가족동거형태($\chi^2=30.168$, $p<.001$), 부모관계 만족도($\chi^2=16.009$, $p<.001$) 및 친구관계 만족도($\chi^2=183.948$, $p<.001$)로 나타났다(Table 1).

집단 따돌림 경험군과 비경험군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 및 학교생활 적응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집단따돌림 경험군이 비경험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8.379$, $p<.001$). 대상자의 스트레스는 집단따돌림 경험군이 비경험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9.179$, $p<.001$). 대상자의 우울은 집단따돌림 경험군이 비경험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4.468$, $p<.001$). Boyd 등(1982)의 우울 기준에 따라 우울군(16점 이상)에 집단따돌림 경험군(83.6%)이 비경험군(50.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53.714$, $p<.001$). 대상자의 학교생활 적응은 집단 따돌림 경험군이 비경험군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5.400$, $p<.001$)(Table 2).

집단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집단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2LL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tudents

(N=738)

Variable	Category	M±SD	n (%)	Victims of bullying	Not victims of bullying	χ^2	p
				(n=146)	(n=592)		
				n (%)	n (%)		
Age in years		13.92±.84					
Grade	1st		302 (40.9)	49 (33.6)	253 (42.7)	9.467	.009
	2nd		240 (32.5)	63 (43.2)	177 (29.9)		
	3rd		196 (26.6)	34 (23.3)	162 (27.4)		
Gender	Male		292 (39.6)	57 (39.0)	235 (39.7)	.021	.885
	Female		446 (60.4)	89 (61.0)	357 (60.3)		
School record	High		114 (15.4)	21 (14.4)	93 (15.7)	17.902	<.001
	Medium		334 (45.3)	46 (31.5)	288 (48.6)		
	Low		290 (39.3)	79 (54.1)	211 (35.6)		
Family living together	Parents		664 (90.7)	117 (80.1)	547 (92.4)	30.168	<.001
	Father		42 (5.7)	22 (15.1)	20 (3.4)		
	Mother		32 (4.3)	7 (4.8)	25 (4.2)		
Satisfaction with parents	Satisfied		396 (53.7)	63 (43.2)	333 (56.3)	16.009	<.001
	Ordinary		324 (43.9)	74 (50.7)	250 (42.2)		
	Dissatisfied		18 (2.4)	9 (6.2)	9 (1.5)		
Satisfaction with friends	Satisfied		388 (52.6)	39 (26.7)	349 (59.0)	183.948	<.001
	Ordinary		254 (34.4)	39 (26.7)	215 (36.3)		
	Dissatisfied		96 (13.0)	68 (46.6)	28 (4.7)		

Table 2. Level of Self-esteem, Stress,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N=738)

	n (%)	Victims of bullying	Not victims of bullying	t or χ^2	p	Obtained range	Possible range
		Mean±SD	Mean±SD				
		n (%)	n (%)				
Self esteem		20.59± 3.81	23.39± 3.55	-8.379	<.001	14- 35	10- 40
Stress		102.18±18.79	87.06±17.58	9.179	<.001	27-135	27-135
Study related stress		24.36± 4.59	21.97± 5.14	5.145	<.001		
Body related stress		10.12± 3.25	8.24± 2.99	6.693	<.001		
Teacher related stress		18.19± 6.02	16.45± 5.25	3.453	.001		
Friend related stress		22.41± 5.73	16.91± 4.41	12.651	<.001		
Family related stress		27.09± 5.43	23.48± 5.55	7.054	<.001		
Depression		30.45±12.20	16.88± 9.58	14.468	<.001	1- 46	0- 60
Depression	418 (56.6)	122 (83.6)	296 (50.0)	53.714	<.001		
Non depression	320 (43.4)	24 (16.4)	296 (50.0)				
School adjustment		58.73± 9.96	62.85± 7.87	-5.400	<.001	25- 82	22- 88
School interest		15.13± 4.76	18.05± 4.02	-7.563	<.001		
Study achievement		11.71± 2.36	12.29± 2.25	-2.732	.006		
Norm observance		31.88± 5.34	32.62± 3.93	-1.945	.047		

(-2 log likelihood) 값은 421.955, Nagelkerke's R²은 .547, 카이 제곱(Chi-square)은 312.181 ($p<.001$), 예측정확도는 86.4%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집단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성적, 가족 구성형태, 친구관계 만족도, 자아존중감, 친구 관련 스트레스, 가족관련 스트레스 및 우울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적 하위그룹은 상위 그룹보다 집단 따돌림 위험이 2.976배(95% confidence interval [CI]=1.649-5.371)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형태에서 부모와 생활하는 경우는 부모와 생활하는 경우보다 집단 따돌림의 위험이 61.668배(95% CI=14.794-257.059), 모와 생활하는 경우는 부모와 생활하는

경우보다 집단 따돌림의 위험이 3.557배(95% CI=1.087-5.371)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부모 가정에서도 부모와 생활하는 경우 집단 따돌림의 위험이 매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관계 불만족 집단은 만족집단 보다 집단 따돌림의 위험이 3.656배(95% CI=1.712-7.808)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관계 보통 만족집단은 만족집단 보다 집단 따돌림의 위험이 3.243 배(95% CI=1.498-7.023)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집단 따돌림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면 집단 따돌림의 위험은 0.797배(95%

Table 3. Predictors Victim of Bullying using Logistic Regression

(N=738)

	B	S.E.	Wald	p	Odds ratio	95% CI [§]	
						Lower	Upper
Intercept	5.508	1.172	22.093	<.001			
School record*							
High			17.606	<.001	1		
Medium	-.347	.343	1.023	.312	.707	.361	1.384
Low	1.091	.301	13.102	<.001	2.976	1.649	5.371
Family living together [†]							
Parents			54.214	<.001	1		
Father	4.122	.728	32.025	<.001	61.668	14.794	257.059
Mother	1.269	.605	4.404	.036	3.557	1.087	11.634
Satisfaction with friends [‡]							
Satisfied			11.819	.003	1		
Ordinary	1.177	.394	8.910	.003	3.243	1.498	7.023
Dissatisfied	1.296	.387	11.215	.001	3.656	1.712	7.808
Self esteem	-.227	.030	59.098	<.001	.797	.752	.844
Friend related stress	.139	.029	23.467	<.001	1.149	1.086	1.216
Family related stress	.056	.024	5.357	.021	1.058	1.009	1.109
Depression	.097	.014	49.940	<.001	1.102	1.073	1.132

* School record: high (1) versus middle or low (0); † Family living together: parents (1) versus father or mother (0);

‡ Satisfaction with friends: satisfied (1) versus ordinary or dissatisfied (0); § CI=confidence interval.

CI=.752-.844)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면 집단 따돌림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련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집단 따돌림의 위험은 1.149배(95% CI=1.086-1.216), 가족관련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집단 따돌림의 위험은 1.058배(95% CI=1.009-1.109), 우울이 증가하면 집단 따돌림의 위험은 1.102배(95% CI=1.073-1.13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관련 스트레스, 가족관련 스트레스, 우울이 증가하면 집단 따돌림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논 의

청소년기에는 소속된 집단의 친구로부터 수용되기를 바라는 소속의 요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는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Kwon & Kim, 2007).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집단 따돌림에 따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 학교생활 적응과 집단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집단 따돌림 경험군은 19.8%로 나타났다. 이는 Lee와 Kwak (2000)의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19.6%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Park, Son과 Song (1998)의 초·중·고등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24.2%로 본 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고, Kim 등(2004)의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14%로 본 연구 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상이한 결과는 발생율의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설문 내용의 차이(Olweus, 1993)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와 Lee와 Kwak (2000)의 연구에서는 집단 따돌림의 정의와 기간을 동일하게 제시한 반면, Park 등(1998)의 연구에서는 집단 따돌림의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고, 집단 따돌림 기간에서도 차이가 있어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고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집단 따돌림을 목격한 경험은 19.3%인 반면 집단 따돌림 실제 경험은 3.1%로 집단 따돌림을 목격 경험과 실제 경험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2008). 이에 집단 따돌림 실태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 역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2학년에서 집단 따돌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Jo (2002)의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집단 따돌림 피해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학교 입학으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가는 1학년 학생은 새로운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 친구 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함으로써 집단 따돌림의 잠재기에 해당된 것으로 생각되며 3학년은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성숙으로 집단 따돌림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점차적으로 발달시키고 좀 더 강인해 짐으로써 집단 따돌림을 덜 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2학년은 중학교 생활의 과도기로 집단 따돌림이 높게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집단 따돌림의 경험 여부로 발생률을 파악하였으므로, 추후에는 집단 따돌림의 형태, 정도, 기간에 따른 차이

를 비교하는 확대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서는 집단 따돌림 발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lweus (199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집단 따돌림의 발생이 높으며, 특히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에서의 발생비율은 10.7%, 중학교에서는 11.3%로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에서의 발생비율은 4.0%에서 중학교에서는 2.5%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ee와 Kwak (2000)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학생들은 공개된 직접적 집단 따돌림(direct bullying)보다는 사회적 소외(social isolation)나 내적인 배제(internal exclusion)형태로 나타나는 간접적 집단 따돌림(indirect bullying)에 더 많이 노출됨으로써 상반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성적 하위그룹에서 집단 따돌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성적이 집단 따돌림의 위험요인으로 성적 하위 그룹이 상위 그룹보다 집단 따돌림 위험이 2.9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중간성적 그룹은 상위 그룹보다 집단 따돌림의 위험이 0.7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이 높거나 낮은 경우에 집단 따돌림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일반적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Ko (2002)의 연구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집단 따돌림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Lee (2007)의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의 원인으로 성적이 낮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며, Twemlow과 Fonagy (2005)의 연구에서는 집단 따돌림의 결과로 집중력과 학습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학업성적은 집단따돌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집단 따돌림의 결과로 성적이 낮아질 수도 있어 그 인과관계는 달라질 수 있으나 학업성적은 집단 따돌림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성적관리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시 특히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에게는 친구관계로 인한 소속감의 문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훈련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보다 한 부모 중에서도 부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 집단 따돌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형태가 집단 따돌림의 위험요인으로 부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 집단 따돌림의 위험이 부모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보다 61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o (2002)의 연구에서 한부모와 생활하는 경우 집단 따돌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Helsen 등(2000)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는 가족기능에 차이가 없으나 어머니가 계신 경우 가족기능이 높은 것으로 가족 구성원에 따라 가족기능에 차이가 있으며 어머니의 역할이 청소년의 대인관

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가족구조가 취약한 경우 청소년이 받게 되는 사회적 지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구조적 결손에 따른 사회적 지지 부족 문제를 지원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관계 만족도가 낮은 경우 집단 따돌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학습 모델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대인관계 형성기술을 배우며(Yang & Lee, 2005) 이는 청소년의 사회적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는 대인관계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행동 증진 및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계 만족도가 낮은 경우 집단 따돌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관계 만족도는 집단 따돌림의 위험요인으로 친구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집단 따돌림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o (2002)의 연구에서 청소년은 친구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을 도모하지만 친구관계 만족도가 낮은 경우 친구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여 심리사회적 문제, 소외감 나아가 친구집단의 거부와 괴롭힘으로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Twemlow과 Fonagy (2005)의 연구에서는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대인관계 기술 습득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친구관계 문제로 인해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고,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대인관계 기술습득에 장애를 유발함으로써 친구관계 문제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청소년이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친구관계의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경험군의 자아존중감이 낮고, 스트레스 및 우울은 높으며, 학교생활 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Jo (2002)의 연구에서도 집단 따돌림 경험군의 자아존중감이 비경험군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관계에서 받는 지지나 인정은 소속감의 요구가 만족되어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친구관계가 없거나 적어서 친구로부터 소외당하는 청소년들은 낮은 자아 존중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Lee, 2007), 자아존중감이 집단 따돌림 영향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집단 따돌림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결정은 친구관계 및 부적응 행동과 직접 관련된다(한 선행연구(Hwang & Yeo, 200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사회사업을 통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실시와 개입이 요구된다. 우울은 집단 따돌림 경험군이 비경험군보다

높은 것으로(Fitzpatrick, 2005; Kim & Lee, 2008)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Boyd 등(1982)의 우울 기준에 따라 집단따돌림 경험군에서 비경험군보다 우울군에 해당하는 경우가 1.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청소년들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며 자살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Fitzpatrick, 2005),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도 집단따돌림의 경험여부 및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여 치료적 개입과 상담 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하다. Lee (2007)의 연구에서는 집단 따돌림 경험군의 학교생활 적응이 낮고 학교생활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친구관련 스트레스, 가족관련 스트레스 및 우울이 집단 따돌림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Rigby (2000)의 연구에서 집단따돌림 경험군은 친구로 부터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아 친구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은 청소년일수록 환경 적응력이 높아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만 가족이나 부모의 기능 상실은 청소년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집단 따돌림의 영향요인으로(Yang & Lee, 2005),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청소년기의 우울은 대인관계 형성 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서 친구관계에 부적응을 초래하며 우울이 집단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Kim과 Lee (2008)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며, 청소년기의 우울은 문제행동과도 연관되어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Ranta et al., 2009). 이와 같이 집단 따돌림은 학교에서 친구관계에서 발생하지만 그 이면에는 학교 요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스트레스 및 우울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개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에 따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 학교생활적응을 파악하고 집단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 738명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 경험군과 비경험군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 및 학교생활적응을 파악하고,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집단 따돌림 경험군은 19.8%로 나타났으며, 성적이 낮고 부와 생활하는 경우, 부모관계 만족도 및 친구관계 만족도가 낮은 경우 집단 따돌림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따돌림 경험군이 비경험군 보다 자아존중감이 낮고, 스트레스와 우울이 높고, 학교생활 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낮은 성적, 부모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보다 한 부모 중에서도 부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 친구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집단 따돌림의 위험이 증가하고,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면 집단 따돌림의 위험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관련 스트레스, 교사관련 스트레스, 우울이 증가하면 집단 따돌림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해서는 친구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아존중감 강화전략, 스트레스 및 우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에 따라 집단 따돌림의 기간, 정도, 형태에 따른 정의가 다양하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집단 따돌림 실태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 볼 것을 제언한다.

둘째, 최근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문화간 접촉에 따른 대립과 갈등에 부딪히게 되고, 다문화청소년들에게는 문화적 편견과 차별이 더해져서 새로운 양상의 집단따돌림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가치관 교육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 볼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Austin, S., & Joseph, S. (1996). Assessment of bully/victim problems in 8 to 11 year-olds. *Th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 447-456.
- Boyd, J. H., Weissman, M. M., Thompson, W. D., & Myers, J. K. (1982). Screening for depression in a community sample. Understanding the discrepancies between depression symptom and diagnostic scal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9, 1195-1200.
- Callaghan, S., & Joseph, S. (1995). Self-concept and peer victimization among school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 161-163.
- Chang, I. K. (2003). *A study on relation of drinking behavior with stress, alcohol expectancy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hon, K. K., & Rhee, M. K. (1992). Preliminary development

- of Korean version of CES-D.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1(1), 65-76.
- Chung, M. J., & Yuh, J. I. (2009). Effects of individual and social factors on children's affective problems and self-worth.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3), 71-82.
- Felner, R. D., Ginter, M., & Primavera, J. (1982). Primary prevention during school transitions: Social support and environmental structur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277-290.
- Fitzpatrick, K. K. (2005). *Parameters of suicidal ideation: Efficacy of a brief preventive intervention for suicidal ideation and the courses of suicidal ideation and its correlat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io.
- Helsen, M., Vollebergh, W., & Meeus, W. (2000).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nd friends and emotional problems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 319-335.
- Hwang, M. H., & Yeo, T. C. (2006). Self-esteem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of Korean children.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5, 165-185.
- Jo, H. L. (2002). The actual condition and countermeasure device of 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 *Yonsei Social Welfare Review*, 8, 1-26.
- J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1), 107-130.
- Kim, A. Y., & Lee, M. H. (2008).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depressive tendency, and school adjustment in middle- and highschool.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2, 423-441.
- Kim, Y. S., Koh, Y. J., & Leventhal, B. (2004). Prevalence of school bullying i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8, 737-741.
- Ko, J. H. (2002). *A study on the self concept and mental health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n the bul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Kwon, J. D., & Kim, D. B. (2007).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Seoul: Hakjisa.
- Lee, C. J., & Kwak, K. J. (2000). Self-concept & social support according to bullying type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3(1), 65-80.
- Lee, G. N. (2007). *The actual condition and countermeasure device of bullying at schoo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Gumi.
- Olweus, D. (1993). *Victimization by peers: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Rubin, K. H., & Asendorpf, J. B.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Hillsdale, NJ; Erlbaum.
- Park, G. S., Son, H. G., & Song, H. G. (1998). *Research about bullying actual condition (social exclusion and bothering) of student*.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98-109.
- Park, H. S. (1998). *The school resilience of Korean adolescents in pover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anta, K., Kaltiala-Heino, R., Pelkonen, M., & Marttunen, M. (2009). Associations between peer victimization, self-reported depression and social phobia among adolescents: the role of comorbidity. *Journal of Adolescence*, 32, 77-93.
- Rigby, K. (2000). Effects of peer victimization in school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adolescent well-being. *Journal of Adolescence*, 23, 57-6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eter, M. A., & Koerner, A. F. (2008). The effect of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on adopte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0, 715-727.
-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2008). *2008 Statistics on the youth*. Seoul: Author.
- Twemlow, S. W., & Fonagy, P. (2005). The prevalence of teachers who bully students in schools with differing levels of behavioral problem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 2387-2389.
- Yang, S. H., & Lee, P. S. (2005). The effects of a stress management program on mental health and the coping behavior for the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77-86.
- Yang, S. H., Shon, Y. H., Paik, H. J., Won, J. S., Yoo, J. H., & Jeon, M. Y. (2007). *Fundamentals of nursing (4th)*. Seoul: Hyunmoonsa.

Self Esteem, Stress,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who are Victims of Bullying

Lee, Hea Shoon¹⁾

1)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Dongseo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esteem, stress,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who were victims of bullying and those who were not. **Methods:** The questionnaire included the Peer Victimization Scale (Callaghan & Joseph, 1995), Self-esteem Scale, (Rosenberg, 1965), Daily Hassles Questionnaire (Felner, Ginter & Primavera, 1982) an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Radloff, 1977). Data from 738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frequencies, means, χ^2 -test,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14.0. **Results:** Victims of bullying accounted for 19.8% of the student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for grade, school record, family living together, satisfaction with parents and satisfaction with friends between students who were victims of bullying and those who were not. Self esteem and school adjustment for the victims of bullying were lower than for those in the non-victim group, and stress and depression were higher.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school record, family living together, satisfaction with friends, self esteem, friend related stress, family related stress and depression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being a victim of bullying. **Conclu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offer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 programs to prevent students becoming victims of bullying.

Key words : Nonsexual Harassment, Self Esteem, Life Stress, Depression, Social Adjustment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Hea Shoon

Department of Nursing, Dongseo University

San 69-1 Jurye-2-Dong, Sasang-Gu, Busan 617-716, Korea

C.P.: 82-11-399-0380 Fax: 82-51-320-2721 E-mail: lhs7878@hanmail.net